지역 소식통

고창전통시장, 다문화시장가요제

고창전통시장에서 '다문화시장가요제'가 개최되어 다문화가족과 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시간을 보냈다.

18일 고창전통시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가요제는 2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10팀의 참가자들은 힘든 농사일과 집안일을 할 때마다 시름을 잊게 해준 애창곡으로 무대를 채웠으며, 관객들은 흥에 취해 어깨춤을 추며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었다.

경연결과 공음면 알린브이푸엔테스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신림면 로자다 네시 씨가 우수상을, 고창읍 천화지 씨가 장려상을 그 외 2팀이 인기상을 수상했다.

최만영 상인회장은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에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달 18일에는 더 큰 규모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개최될 예정이라 초대가수와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므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남부안농협, 줄포사랑상품권 운영 · 관리 업무협약

부안군과 남부안농협, 줄포상가번영회는 19일 부안군청에서 오는 21일 줄포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상품권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부안군 심문식 해양수산과장과 이선규 줄포면 부면장, 줄포면 사회단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협약서 서명 등으로 진행됐다.

줄포사랑상품권은 줄포면에 소재한 영세상인 보호 및 침체한 줄포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부안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줄포면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남부안농협지점에서 판매하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내 숙박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객의 경우 이용금액의 10%를 줄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줄포사랑상품권이 활성화돼 침체된 줄 포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권재민 부안 부군수, 비상대피시설 긴급 점검

군민 생명 보호 앞장

부안군 권재민 부군수가 관내 비상대피시설을 점검, 군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19일 권재민 부군수는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에 대해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점검을 펼쳤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나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시설로 부안군 비상급수시설은 식수용으로 3개소, 생활용수 1개소 등이 있다.

비상급수시설에는 전기공급이 중단될 것에 대비해 자가발전기와 비상용 유류, 호스 등이 구비돼 비상사태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급수량은 1인 1일 25 l 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민방위 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시설로 부안군은 부안읍에 14개소, 변 산면에 3개소로 총 17개소의 대피시설이 있으며 대피시설에는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특히 민방위대피소는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전다침돌'을 검색해 앱을 설치하면 내 주변에 있는 대피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으나 대부분 지하주차장이나 대형건물의 지하실 등이며 대피소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권재민 부군수(사진)는 "민방위 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 되는 시설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시설에 필요한 장비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읍면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노후화된 민방위 장비를 파악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뒤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신태인시장 개장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

기념식 · 인기가수 초청공연 · 불꽃쇼 등 다채롭게 펼쳐져

지난 18일 신태인시장 개장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시의회 의장을 비롯 전북도의회 의원과 정읍시의회 의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개장 100주년을 기념하고 그간 시장을 찾아준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기념비 제막, 100년 희망 나누기와 홍진영, 박상철, 오로라, 서정우, 지혜 등의 인기가수 초청 공연, 불꽃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김생기 시장은"지난 100년을 지켜온 신태인시장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 친화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 100년 더 나아가 200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친절한 서비스와 질 좋은 상품으로 고객을 맞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훈 신태인시장 상인회장도 "신태인시장 개장 100주년은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뜻깊은 일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전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면서 고객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태인 시장은 1917년부터 5일장(3일, 8일)으로 개장, 올해 100주년을 맞았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상수도 유수율 제고 위한 컨설팅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한국상하수도 협회와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에 진행된 컨설팅은 지자체의 수도시설 운영·관리능력 향상과 신속한 문제 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기술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고창군 상수도 관망운영 및 수압관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전반적인 시설운영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유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고창군은 컨설팅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일부 현장에 적용하여 하반기 컨설팅 사후관리를 거쳐 효과를 검증한 후 전체 급수구역에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 자체 누수탐사반 편성·운영을 통해 누수저감과 관로사고를 사전 예방하겠다"며 "노후관 교체 등 시설정비 와 더불어 효율적인 관망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시립정읍사국악원 가야금반 연수생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

정읍시립정읍사국악원 가야금반(지도교수 장승희, 이하 가야금반) 연수생들이 제19회 김제지평선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에 따르면 최근 (사)한국예술진흥원과 김제국악원 주관으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 기악단체 부문에 참가한 가야금반(8명)은 단연 돋보이는 무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모두 11명이 실력을 겨룬 기악부문 개인전에서는 김숙영씨가 최우상을 수상하면서 정읍사국악원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기악과 판소리, 무용 등 국악 인재들이 대거 참가(단체, 개인)해 그간 닦아온 실력을 겨뤘다.

정읍사 국악원은 연간 반기별로 판소리와 가야금, 대금, 무용분야 연수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저렴한 수강료로 운영,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연중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청 문화예술과(☎539-6412) 정읍사국악원(539-6427)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사고 Zero' 총력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안전사고 Zero'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

기술센터에 따르면 연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농기계 안전 사고는 1000여건으로, 봄철 4월~5월과 가을철 9월~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기술센터는 이달과 내달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의 달'로 지정, 운영 중에 있다.

이 기간 기술센터는 농가에 농기계에 반드시 등화 장치를 부착할 것을 당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 점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기술센터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 18일에는 신태인시장 개장 100주년 기념 행사장 주변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캠페인도 펼쳤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소방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대비 도상훈련

부안소방서는 19일 14시 본서 2층 소회의실에서 부안소방서, 긴급구조 지원기관 부안군청을 비롯한 부안경찰서, 해병대부안군전우회 등 16개소 재난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 대비 기관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관내 많은 관람객이 찾는 부안종합예술회관에서 진도 5.5의 지진으로 붕괴 및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기관 간 지휘체계를 확립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재난의 조기 수습과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김영태 방호 구조과장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훈련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임무 숙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